

2025. 7. 4

해외동향부 (제 7188)

- 주요 뉴스: 미국 6월 비농업 신규 고용, 예상치 상회 하원은 트럼프 감세법안 최종 가결
 - 미국 트럼프, 4일부터 관세율 서한 발송. 재무장관은 100개국에 10% 상호관세 예상
 - EU, 미국과 무역 원칙 합의가 목표. ECB 분수 위원은 인플레이션 위험 감소 평가
 -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9개월 만에 최저. 신규 수출수주 감소 등에 기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6월 고용지표, 감세법안 하원 통과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8%], 달러화 강세[+0.4%],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경제 낙관론 확산 등으로 신고가 경신 지속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금융 및 기술주 강세 등으로 0.5%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9월 고용보고서 결과 등을 반영하며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9%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안하 전망 후퇴 등이 배경
독일은 전일 가격 하락에 따른 매수 유입 등으로 5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61.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63.5원, 0.3% 상승). 한국 CDS 하락

주요지수					주요지수				
		7/3일	7/2일	전일대비			7/3일	7/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279.4	6,227.4	+0.83%	국채금리 10y	미국	4.35%	4.28%	+7bp
	유럽	543.76	541.21	+0.47%		독일	2.62%	2.66%	-5bp
	중국	3,461.2	3,454.8	+0.18%		영국	4.54%	4.61%	-7bp
	일본	39,786	39,762	+0.06%	CDS 5y	한국	25bp	26bp	-1bp
	한국	3,116.3	3,075.1	+1.34%		중국	48bp	50bp	-2bp
환율	달러지수	97.12	96.78	+0.36%	위험지표	EMBI+	-	364	-
	유로화	1.1757	1.1799	-0.36%		VIX	16.38	16.64	-1.56%
	엔화	144.93	143.66	-0.88%		WTI유	67.00	67.45	-0.67%
	위안화	7.1706	7.1631	-0.10%	원자재	구리	509.7	514.9	-1.01%
	원화	1,359.4	1,358.7	-0.05%		금	3,326.1	3,357.5	-0.9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6월 비농업 신규 고용, 예상치 상회. 하원은 트럼프 감세법안 최종 가결

- 6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건수는 14.7만 건으로 전월(14.4만)에 비해 증가했고, 예상치(11.1만)도 상회. 실업률은 소폭 하락(4.2%→4.1%).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3.7% 올라 전월(각각 0.4%, 3.8%) 대비 상승세 둔화
- 6월의 고용 증가는 주로 정부부문(7.3만건)에서 발생. 연방정부 일자리는 5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용이 공공부문을 견인. 민간부문 일자리는 7.4만명 증가에 그쳐 예상치(10.0만건) 하회했으며, 이는 허리케인과 노동파업의 영향이 심각했던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
-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를 경제가 양호하다는 의미로 해석했고, 이에 S&P500지수가 상승(+0.8%).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부문 고용이 부진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2개월 연속 감소한 점에 우려 표명. 또한 지방정부 고용 증가가 교육 분야의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고, 노동시장 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잠재적 불안 요인도 존재한다고 지적
- 예상보다 양호한 6월 고용 결과로 경기 둔화 우려는 완화되고 금리인하 기대는 약화. CME의 FedWatch도 연내 2회의 금리인하(9, 12월, 각 0.25%p)를 예상하여 이전(3회) 대비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했음을 시사.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 역시 양호한 경제 회복력 및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
- 6월 ISM 서비스업 PMI는 확장의 기준 50을 상회하며 전월비 상승(49.9→50.8). 세부항목 중에서 고용지수는 47.2로 3개월째 하락했고, 투입가격지수는 전월비 하락(68.7→67.5)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비용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 6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3.3만건으로 6주래 최저
- 한편 이날 하원은 트럼프의 감세법안을 218대 214로 가결.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부터 시행된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의 영구화, 국방·국경 안보 예산의 증액 등이 주요 내용.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자원)와 보충 영양 프로그램 지원(SNAP) 등 사회 안전망 예산은 대규모로 삭감되며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은 폐지
-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국가부채가 3.4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 다만 이번 법안의 통과는 집권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정치적 승리로 평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따른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발에도 가결되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7/4일)에 서명할 예정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4일부터 관세율 서한 발송. 재무장관은 100개국에 10% 상호관세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각국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통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 이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의 일환으로 평가. 한편, 베트남 이후 2개 국가와 추가적인 무역협정이 기대된다고 첨언.
 - 베센트 재무장관은 약 100개국에 최소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 또한 7/9일 전에 다수의 무역협약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 다만 협상국들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전 서둘러 합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발표된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
- **EU, 미국과 무역 원칙 합의가 목표. ECB 분수 위원은 인플레이션 위험 감소 평가**
 - 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7/9일 이전에 미국과 완전한 형태의 무역협정 체결은 불가능하기에 '원칙적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발언. 한편, ECB의 분수 위원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화되어 연내 1회의 금리인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 ECB의 6월 통화정책의사록 요지는 세계 무역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했다고 제시
-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9개월 만에 최저. 신규 수출수주 감소 등이 반영**
 -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0.6으로 전월(51.1) 대비 하락해 9개월 만에 최저.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 수출수주가 '22년 1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는데, 이는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시장에서는 소비가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투자 및 제조업 경기 악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
- **일본의 봄철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 일본은행의 경제 회복 시나리오 뒷받침**
 - 최대 노동조합 렌고는 금년 춘투(봄철 임금협상) 결과 평균 임금 인상률이 5.25%라고 발표. 이는 34년 만에 최고 수준.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일본은행이 추진하는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기반의 경제 회복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 유로존 5월 소매판매, ECB 엘더스 이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주도의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US-Led Trade War Threatens a Global Economic Setback)

- 미국의 무역정책은 자국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후퇴도 초래할 전망. 세계은행은 관련 영향으로 금년 및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모두 약 1.0%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IMF와 OECD 등도 이와 유사한 전망을 제시. 일부에서는 `30년까지 세계 GDP가 1조 달러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Bloomberg Economics)
- 초기 충격은 선진국의 투자 감소 및 자본 유출로 나타나고, 이후에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도 이에 따른 피해에 직면할 전망. 물론 이러한 예측은 아직 추정에 불과하지만, 위험이 하방으로 치우쳐있다는 점은 분명. 특히 공급망 불안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음에 주의가 요구

■ 미국 공화당의 감세법안, 부채 급증복지 삭감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블룸버그

(The Republican Budget Bill Is an Economy Killer)

- 하원이 통과시킨 트럼프 감세법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 제기. 첫째, 향후 10년 내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 증가할 가능성. 이는 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 증가를 유도. 아울러 과거 세제 감면 경험에 따르면, 세금 삭감은 부채 증가의 핵심 요인
- 둘째, 저소득·중산층을 위한 의료 및 영양 지원을 대폭 삭감. 이는 식량 지원에 따른 소비 지출 증대 효과와 메디케이드의 재정 안정성 향상 효과를 감소시켜 경제에 부정적 결과 초래할 것으로 추정

■ 중국 경제 평가, GDP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본질적 모습에 집중할 필요 - 블룸버그

(Taking GDP Out of the China Equation)

-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은 회복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발신. 다만 안타까운 점은 당국의 목표인 GDP 5% 성장 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근본적인 경제 상황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 경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 역시 당국이 GDP 결과에만 치중한 부작용의 일부
- 이에 최근 중국의 GDP 5%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부진한 고용과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을 우려. 또한 미국과의 무역갈등 및 이에 대한 대응도 향후 중국 경제를 전망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사안. 이제는 GDP 성장 목표 달성이라는 집착을 버리고 질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

■ **금융시장, 캐리트레이드 등의 위험 요인으로 새로운 위기 발생할 소지 - Financial Times**

(The trades that will shape a new financial crisis)

-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만연하는 시스템적 위험이 간과되면서 세계 경제는 위기에 봉착. 이에 현재 직면한 금융시장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 첫째, 자산 가격과 통화 가치 변동성에 취약한 캐리트레이드 증가. 둘째, 안정성 담보를 위한 직간접 형태의 옵션 투자 급증은 변동성 심화 시 큰 손실로 연결될 소지
- 셋째, 자산 간 높은 상관관계를 활용한 상대적 가치 투자의 대규모 포지션은 양 상품 간 괴리 심화 시 위험 증가. 넷째, 비상장 사모펀드와 신용시장 팽창으로 유동성 위험 증가. 다섯째, 자산 유동화를 통한 증권화 및 합성 위험 전가(SRT) 방식 확대('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를 초과)로 금융위기 당시의 취약점 재부각
- 이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현금 흐름 감소, '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미국 기업의 채무 상환 불이행률, '20년대 최고 수준의 사모펀드 대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및 비은행 금융 중개업체에 대한 경고(IMF), 주택 및 자동차 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및 기타 소비자 부채의 연체율 증가 등도 유념할 필요

■ **미국의 유럽 디지털시장법 철회 요구, 경쟁 저하로 혁신 저해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America must not defang Europe's new tech law)

■ **미국의 이란 제재, 이란産 석유의 대규모 생산 고려 시 효과에 의문 - 블룸버그**

(Iranian Oil Production Booms Amid the Bombs)

■ **중국의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비판, 美中 무역 갈등 심화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China criticises Donald Trump's trade deal with Vietnam)

■ **영국의 재정 우려, 파운드화 및 국채 가격에 하방 압력 가중될 전망 - Reuters**

(UK markets head back into troubled waters as fiscal angst rises)

■ **일본의 무이자 시대 종식, 은행권 경쟁 촉진·투자자 행동 변화 유도할 소지 - Financial Times**

(Japan's great unsticking has be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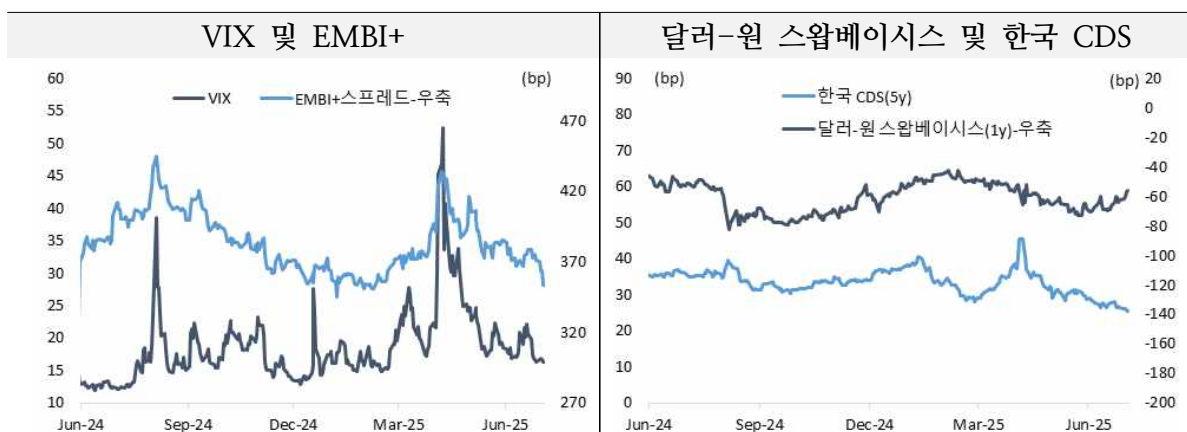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